

## WEC 2000 집행이사회 뉴델리에서 열려

정관 대폭 개정, 차기 의장에 필리핀 Rosario씨

WEC의 2000년도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가 지난 11. 20~24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집행이사회는 WEC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전회원국이 동일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이 회의를 통해 WEC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임원선출 등 운영제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2000년도 집행이사회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 반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WEC의 정관을 대폭 개정하고, 그동안 임원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해오던 Officers Council을 명실상부한 이사회(board of trustees)로 지위 향상을 시켰으며, WEC 역사상 개도국에서는 최초로 필리핀 국내위원회 의장인 Antonio del Rosario씨가 차기(2001-2004)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1998-2001년간 Work Programme의 지속적 추진과 2001년 10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릴 예정인 제18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2002년도 집행이사회 개최지로는 이집트 시나이반도 남쪽 도시인 Sharm El-Sheikh가 선정되었다.

그외 주요 행사로는 에너지가격체계 심포지엄, World Energy Assessment 발표, 인도에너지데이, 에너지전시회, 지역별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각국 참석자들을 위해 발전소 등 산업시설 견학도 실시하였다.

인도는 1997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5.7%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업용에너지 소비 비중이 지난 50년만에 26%에서 68%로 증가하여 현재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환산 연간 285kg으로 미국의 3%, 일본 영국 독일의 7%, 중국의 50%, 세계평균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10년에는 450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의 부존자원으로는 석탄이 단연 1위를 차지하는데, 1차에너지 공급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매장량 2,120억톤 중 820억톤이 확인되었으며, 갈탄(lignite) 매장량은 300억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탄생산 수준은 1999년 300만톤으로 세계 3위이며, 발전부문의 석탄소비의 70%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석유/가스부문은 탐사·개발 집중으로 1973~4년에 1차에너지 공급의 34%를 차지했으나, 1999~2000년에는 42%로 상승, 현재는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정체되어 2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장기전원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50GW, 2012년까지 現시설용량과 같은 규모인 약 100GW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1,700억 달러의 자금소요가 예상되고, 약 50%를 민간투자 유치로 해결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기존시설의 개보수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 <인도의 발전설비 현황> (2000. 3월말 현재)

(단위: MW)

소유\원별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계
지방정부	20,791	38,434	0	55	59,280
중앙정부	2,569	24,753	2,680	0	30,002
민영	456	7,000	0	1,100	8,556
계	23,816	70,186	2,680	1,155	97,837

WEC총회 참가안내

## 뉴밀레니엄 시대 에너지시장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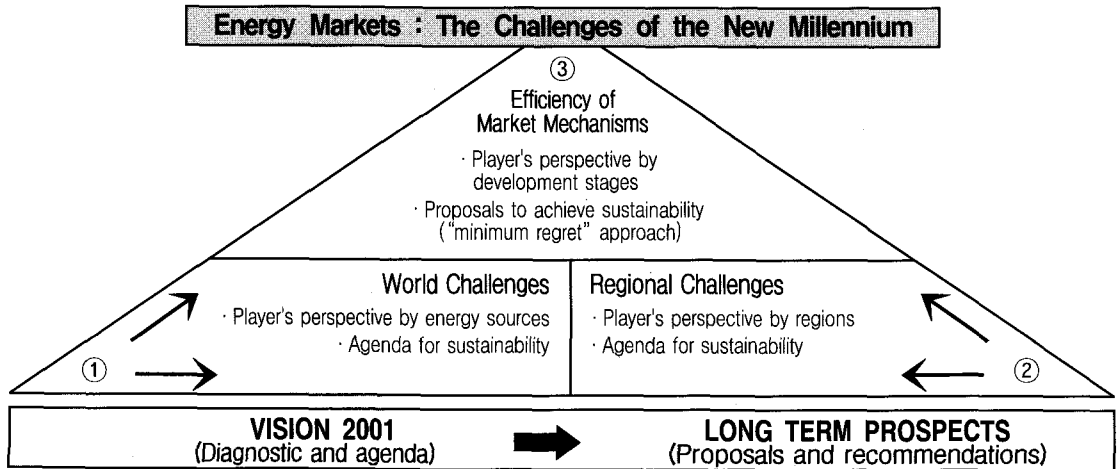
2001. 10. 21 ~ 25 / 부에노스 아이레스

WEC 제18차 총회가 2001. 10. 21-2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뉴밀레니엄 시대 에너지시장의 도전”을 주제로 개최된다.

20세기 마지막 10년간의 기술진보는 선후진국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켰으며, 상업 및 비상업적 에너지라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 시켰다. 현재도 개도국 16억의 인구는 취사를 위해 고체연료, 전통적 바이오매스, 폐기물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기, 천연가스 또는 액체연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접근도 할 수 없

는데 반해 다른 한편의 세계에서는 인터넷상으로 각종 형태의 에너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의 붐과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세계 각국의 에너지장관, 고위경영자, 연구계 및 컨설턴트 종사자, 언론인 등 5,000여명이 모여 에너지산업의 현황, 예상되는 어젠다 및 에너지시장의 효율향상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 뉴밀레니엄 시대 세계 및 지역 에너지시장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구체적 “대안제시”에 2001년 총회의 목적이 있다.



〈총회참가 등록비〉

구 분	2001. 5. 31까지	2001. 6. 1-9. 30	현 장 등 록
Participants	US\$1,500	US\$1,600	US\$1,700
Young Professionals	US\$650		N/a
Accompanying Persons	US\$500	US\$500	US\$500
Accompanying Persons of Young Professionals	US\$350		N/a

※WEC 제18차 총회 참가 관련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협의회 사무국(Tel: 02-787-8508)으로 연락주시시오.

《WEC 총회 세션별 토픽》

Division/Topics	Session
<b>Division 1 : 세계 에너지시장의 도전 (World Energy Market Challenges)</b>	
1.1 세계 정치, 경제 및 정보기술 측면의 "핵심요소 "(drivers) : 에너지산업의 주변여건 (非에너지 산업계의 관점)	KA1
1.2 에너지산업계의 관점(The industry players' perspective)	
1.2.1 화석연료 : 석유, 가스 및 석탄	DS1
1.2.2 수력,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DS2
1.2.3 원자력에너지	RT1
1.2.4 에너지효율 및 절약	DS3
1.3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상되는 어젠다(에너지산업 내외의 종합적 판단)	
1.3.1 제도, 규제 및 환경상의 이슈	DS4
1.3.2 경제 및 상거래 문제	DS5
1.3.3 연구개발(R&D) 및 정보기술(IT)	DS6
1.3.4 환경 및 사회-문화적 문제	RT3
<b>Division 2 : 지역별 에너지시장의 도전 (Regional Energy Market Challenges)</b>	
2.1 아시아	
2.1.1 아태지역(Asia/Pacific)	DS7
2.1.2 중동지역(Middle East)	DS8
2.1.3 남아시아지역(South Asia)	DS9
2.2 유럽	
2.2.1 중유럽지역(Central and Eastern Europe)	DS10
2.2.2 구소련지역(Former Soviet Union)	DS11
2.2.3 서유럽지역(Western Europe)	DS12
2.3 남미 및 카리브해지역(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KA2&DS13
2.4 북미지역(North America)	DS14
2.5 아프리카지역(Africa)	DS15
<b>Division 3 : 시장 메카니즘은 중장기적 에너지자원 배분에 효율적인가?</b>	
3.1 시장의 효율과 불완전성 : 선진국,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의 관점	KA3
3.2 에너지시장 효율증진을 위한 제안	
3.2.1 부분적 경쟁체제내에서의 에너지규제	DS16
3.2.2 상업 및 비상업적 에너지이용과 개발, 그리고 경제적/환경적 외부성	DS17
3.2.3 대규모(mega) 및 소규모(local)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조달	DS18
<b>WEC STUDIES AND PROGRAMMES</b>	
	RT2/4/5/6
<b>결론 세션</b>	
· 3개 Division별 발표내용 종합 및 요약	RS
· 남미지역 정치, 경제 및 에너지산업의 "핵심요소"(drivers) : 남미지역 각국 대통령 연설	KA4
· 폐회식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KA : Keynote Addresses, DS: Discussion Sessions, RT: Round Tables, RS: Review Session

## 2001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에너지업계 협력증진 및 유대강화 도모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1월 17일 한전 본사 후생동에서 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을 모시고 회원사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에너지관련 단체 주요인사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崔洙秉 한국에너지협의회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전력산업 사상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개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관계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토대를 마련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말하고 “에너지경영인 모두는 에너지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크나큰 비중을 생각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새해에는 보다 뜻깊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과거의 산업화시대의 정부 주도, 공기업 주도로 해 왔던 경제의 틀을 시장경제의 Global Standard에 의한 운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바탕위에 우리의 성장전략 자체를 과거의 노동,



재정의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지식, 기술, 정보등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혁신적인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 모인 에너지관련 분야 인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일치 단결하여 금년을 기점으로 다시 성장하는 저력을 창출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수병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병길 대한석탄공사 사장, 박문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김명규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정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장, 김영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용택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형국 한전기공 사장, 황두열 SK 부회장,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 윤영식 한국중공업 사장, 정몽혁 현대정유 사장 등 40여명의 에너지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및 임원선임

한국에너지협회의는 지난 2월 27일 LG 트윈타워 3층 회의실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와 제35차이사회 및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 확정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장 및 부회장 선임과 상임이사를 새로이 선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23명 중 임기 만료된 비상근 이사 15명과 상임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였다.

회장은 최수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임되었으며, 부회장은 박용택 한국전력기술 사장, 이병길 대한석탄공사 사장, 황두열 SK 부회장 등 3명이 재선임 되었다.

또한 새로 선임된 비상근 이사에는 최중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홍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허동수 LG칼텍스정유 부회장,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 윤영식 한국중공업 사장,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손재익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정근모 호서대학교 총장, 김종술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김동기 대한광업진흥공사 본부장 등이 연임 되었으며, 정몽혁 현대정유 사장이 신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상임이사에는 함종칠 전 산업자원부 과장이 선임되었다.

#### 사무국 동정

한국에너지협회의는 2월 27일 제36차 이사회에서 咸鍾七 상임이사/사무국장(前 산업자원부 과장)을 새로이 선임하고, 신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협력증진과 유대강화를 통한 회원사의 이익증진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咸鍾七  
상임이사/사무국장